

노무라 종합 연구소

평화와 번영의 경제 예측

목 차

1. 국제환경
 - 1.1. 새로운 시대의 틀과 동구정세
 - 1.2. 원유시장 동향
 - 1.3. 국제 통화 정세
2. 주요국의 무역구조와 국제 경쟁력
 - 2.1. 연구개발비와 국제경쟁력
 - 2.2. 해외 직접 투자의 영향
3. 세계 경제의 지역별 동향
 - 3.1. 미국 경제의 구조 조정과 자원 배분
 - 3.2. 변모하는 유럽 경제
 - 3.3. 서태평양 경제권의 형성
4. 일본 경제의 fundamentals
 - 4.1. 노동력 수급
 - 4.2. 소비구조의 고도화
 - 4.3. 2000년의 지가
 - 4.4. 유럽·미국과 같은 사회 자본 수준을 목표로
 - 4.5. 풍요시대의 저축행동
 - 4.6. 산업구조의 서어비스화
5. 선진국과 경제발전 단계 지수

일본 노무라 종합 연구소에서 1990년 3월에 발행한 "노무라 중기 경제전망"의 일부분을 발췌·게재합니다.

번역 : 이재경(한국기계연구소 책임연구원)

소련 및 동구의 광범한 개혁을 기화로 1990년대의 세계는 이데올로기의 탈을 벗어버리고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시대」로 돌입했다. 「새로운 시대」의 틀을 「지나간 시대」와 비교, 요약해 보면, 첫째로 정치적으로는 냉전의 시대가 끝나고 동서화해의 방향으로 향함과 더불어 종래의 미소의 2극대립 구조가 유럽·아시아·서태평양을 새로운 극으로 하는 다원적·다층적 구조로 이행함을 의미한다. 그와 동시에 미소간의 군사전략 문제에 대신해 유럽안보체제의 재구축이나 자원·환경·통상마찰등 지구화된 문제가 세계의 중심과제로써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지나간 시대」에는 강력한 금융 긴축에 따른 실업, 긴축재정, 개발 도상국의 채무등이 세계 수요의 신장을 억제해 왔다. 「새로운 시대」에는 선진공업국을 중심으로 활기가 확산하는 국면을 맞아 수요의 신장에 대한 브레이크가 풀리기 때문에 성장 제약이 되는 것은 노동력이나 에너지, 인플레이등 공급면의 제약이다.

이 공급제약을 타파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과제가 되겠지만 여기서 기대되는 것은 평화의 배당이다. 동서화해는 국방비 삭감을 통해서 미국금리의 저하, 자본 cost의 경감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서구에서는 동구로부터 신규노동 공급의 잠재성장율을 높여준다. 또한 소련이나 중동의 에너지 개발이 진전되면 그것도 공급 제약의 완화요인이 된다.

이리하여 평화시대의 경제전망은 아주 밝을 것이다. 미국을 선두로 하는 선진주요국이 경기확대를 개시하고 나서 벌써 수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90년대 전반에는 순환적 의미로 일시적인

경기감속도 예상된다. 그러나 경제의 세계화에 따라 발생하는 통상마찰이나 환율변동 등의 risk을 각국이 일치협력하여 관리할 수 있다면, 세계경제는 인플레이에도 디플레이에도 빠지지 않고 번영의 길로 매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원유가격에 관해 본 중기예측의 급등 시나리오에서는 '93년에 걸쳐 1바렐 30달러를 넘는 가격 급등도 있을수 있다. 더우기 이 급등은 만약 발생했다 해도 지속성이 있지 않다. 표준예측에서는 1995년 22-23\$, 2000년의 35\$을 중간점으로 해서 완만히 상승할 것이다.

환율에 관해서는 이미 대폭적인 실질외환 조정은 필요치 않다는 인식하에 내외 인플레이 환율 격차를 시정하는 정도의 완만한 엔고가 예측되며, 1995년 1달러당 120엔을 표준 시나리오의 중간점으로 했다. 1990년대 전반의 美·日間の 경상수지 불균형 시정을 위해서는 환율 조정은 필요없고 소득 조정 및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상과 같은 기본인식과 전제하에 세계경제의 실질성장율은 '90년대 평균으로 년 3.2%, 세계무역은 실제로 5%의 성장이 예상된다. 세계의 실질 GNP 총액에 접하는 미국, 일본, EC(주요 4개국)의 3지역합계 가중치는 1990년은 61%, 2000년도 61%로 변화는 보이지 않지만 미국단독의 구성 가중치는 26%로부터 23%로 3% 정도 줄어드는 반면, 일본은 14%에서 16%로 EC 4개국이 21%에서 22%로 각각의 가중치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1980년대를 통해 과감한 재정정책을 펴 세계 경제를 주도한 미국은 기업·가계·정부등 국내 경제 부문의 부채과다를 초래했다. 1990년대 초반에는 이 채무정리 때문에 일단 정체 상태에 들어간다. 소비의 억제는 부채과다에 시달리는 미국 경제에 돌파구로 삼을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실질 GNP 성장율이 1990년대 전반 2.5%, 후반 2.6%로 잠재 성장율(전반 2.6%, 후반 2.8%)을 밑도는 것도 어쩔수 없다.

구주에서의 동구는 사회주의 경제의 참담한 차질에 조우하여 1980년대에는 좌절된 상태를 빚었으나, 1989년에 동구 대륙에서 일어난 정치

개혁에 의해 활력을 가져왔다. 특히, 동구로부터 서독으로 이민 유입은 서독의 잠재 성장율을 0.4% 정도 인상시킨다. 여기에 EC 시장 통합에 의한 성장을 상승에도 기여하여 서독은 년평균 3%의 성장가능이 예상된다.

양독통일은 사실화 되고 있고 양독 마르크화 교환에 의한 통화증발이 인플레이 염려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동독의 개발 투자에 의한 기대투자 수익율의 상승이 실질금리 상승과 마르크화 강세를 가져와 인플레이 염려는 후퇴할 것이다. 독일의 수입수요의 확대가 경상흑자를 삭감하여 세계적인 국제수지 조정에 공헌할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지금까지의 복고 남저형의 성장 구도가 무너져 '90년대의 성장율은 NIEs 7.3%, ASEAN이 7.1%로 상호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내 무역과 대내 직접투자의 급증, 미국경제력의 상대적 저하를 배경으로 각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대폭 줄어들고 있다. 그 대신에 일본과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내 무역이 한층 활발하게 되고 2000년에는 지역내 무역 비중이 50%을 넘어 현재의 EC내 무역 share에 근접할 것이다.

1990년대 초의 일본 경제는 대형내수 경기가 정착되어 안정적이고 여유만만할 것이다. 잠재성장율(년평균)은 인구구성의 성숙화에 의해 '90년대 전반 4.1%, 후반에는 3.9%로 약간 둔화한다. 실질경제 성장율도 잠재 성장율과 비슷한 것으로 전반 4.1%, 후반 4.0%가 예상된다.

'90년대 일본의 산업구조는 서비스화가 한층 발달하여 제3차 산업의 취업 구성비가 '95년에는 58.8%('90년 55.9%)까지 확대된다. 제조업의 구성비는 19.5%로 내려가겠지만, 고급의 서비스가 고부가가치 제품의 효율적인 생산을 가능케 해 실질생산액은 견실한 성장을 지속할 것이다. 또 반대로 생산증대가 서비스 수요를 창출하여 財·서비스 상호에 도약 효과를 일으켜 일본경제 성장을 지지해 나갈 것이다.

일본경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중 地價폭등, 노동력 수급의 압박, 금융자산 격차 등의 문제는

근본적인 대응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자연 치유는 어려운 상황이다. 地價에 관해서는 택지 공급의 탄력화, 노동력에 관해서는 여성 및 고령자의 고용확대, 한층 합리적인 투자, 유통부문의 성력화 등이 요망된다. 한편 구조 변화속에는 소비의 다양화, 사회자본 투자, 서비스화 현상은 자연경제 성장에 프러스 경향을 주는 요인으로 좋게 평가된다.

일본내의 구조적 문제 외에도 美·日 무역마찰, 에너지 공급, 소련·동구의 행방 등 일본경제에 관련되는 국제 환경은 불투명한 요소도 많다. 그러나 취업가능한 생산인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나 금융자산 축적이 많은 것에 힘입어, 일본 경제는 적어도 '90년대 전반에는 순조로운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1. 국제환경

1.1. 새로운 시대의 틀과 동구정세

| 지나간 시대 | 새로운 시대 | 평화의 배당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냉전구조 이데올로기 대립 동구·Baltic삼국의 주권제한 NATO대 바르샤바 조약기구 군사전략 문제가 최우선 미소의 2국대립 수요제약의 시대 금융고금리 재정긴축, LDC채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합 대결에서 협조로 전후체제의 재평가 (유럽안보회의의 개최) 세계적인 문제의 다발 자원, 환경문제 통상마찰, 환율변동 공급제약의 시대 에너지, 자원문제 노동력 공급의 제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적자 삭감=저금리 노동력의 신규공급 동구→서구 NIEs, ASEAN제국→일본 (제품공급 포함) 에너지 공급 소련, 중동 |

$$(7100 - 2900 - 1300 = 2900).$$

부족감이 없는 여유생산 능력 및 계절적인 peak 수요에 대응 가능한 여유 생산 능력은 각 150~200만 바렐, 100만 바렐이라 한다.

'89년말 현재의 OPEC의 즉시 이용 가능한 생산능력을 2500만 바렐로 하는 케이스(시나리오 A)와 2700만 바렐로 하는 케이스(시나리오 B)의 두가지를 가정해 본다. '93년까지의 OPEC의 추가생산능력 개발을 200~300만 바렐로 하는 케이스(시나리오 I)와 600만 바렐로 하는 케이스(시나리오 II)의 2가지를 상정한다. 시나리오 A, B와 시나리오 I, II를 조합하면 네가지의 시나리오가 가능하고, 더불어 즉시 이용 가능한 생산능력을 2600만 바렐, 추가 생산능력을 600만 바렐로 판정한 표준적인 케이스를 만든다. 표준 케이스에서는 '93년 시점의 OPEC의 생산 능력은 3200만 바렐이 되니까 OPEC원유에 대한 공급과 수요간에 큰 갭은 발생않고 가격 폭등도 회피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 수요가 매년 3%정도 늘고 소련의

1.2. 원유시장동향

세계 석유 수요의 연 증가율을 2.35%로 하면 1993년의 세계 수요는 7100만 바렐이 된다(1988년의 실적은 6320만 바렐).

소련을 제외한 비OPEC의 생산량은 '93년 시점에 2900만 바렐, 소련의 생산량을 1300만 바렐이라면, OPEC 원유 수요는 2900만 바렐이 된다

생산 능력이 증가 안하는 경우 가격동향은 불안정해지고 '91~'92년에 가격폭등이 일어날 수 있다. 또 미국의 석유공급면의 경직화도 가격동향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재료이다.

1.3. 국제통화정세

년간 1000억 달러를 넘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

자가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외채무는 방대한 규모에 달하고 있고 이 이상 더 많은 적자는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경상수지 적자 삭감을 위해서는 환율 변동에 의한 조정과 소득조정의 두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소득 조정이다. 왜냐하면, '80년대 후반의 달러 하락에 의해 미국의 상대 코스트는 상당히 낮추어졌고, 이로 인해 재래산업의 경쟁력은 상당히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더우기 매년 발생하는 美·日의 인플레이율 격차(2~3%)분의 名目환율 조정이 필요하다. 또 stock으로써의 대외 채무를 삭감하기 위해서는 '90년초의 140엔대의 환율은 부적당하고 10엔 정도의 일시적인 조정도 필요하다.

동독등 동구의 일부를 포함한 확대구주의 경상수지는 금후 적자화하고 그에따라 국제자본의 구주로의 이동이 계속되며, 전체적인 유럽통화는 긴축 조정이 예상된다. 특히, 독일 마르크는 결제 통화 등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달러, 엔, 마르크의 multi currency system이 모색된다.

2. 주요국의 무역구조와 국제경쟁력

2.1. 연구개발비와 국제경쟁력

주요국의 무역구조와 국제경쟁력을 전망하기 위한 제일 주목점은 각국의 연구개발의 동향이다.

'70년 이후의 G5 제국의 수출 점유율의 변화는, 상대노동 cost의 변화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지만, 연구개발 투자비와의 비율은 정비례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이 수출경쟁력의 중요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입증된다.

각국의 품목별 수출특화 상황을 보면, 일본은 시장규모가 크고 성장성이 높은 품목을 특화하고 있는 경향이 보이지만 이러한 수출 특화의 패턴도 각국의 연구개발 지출의 특화 동향에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

각국의 연구개발 지출 동향을 결정하는 중요요인은 자본 cost의 수준을 들수 있다. 자본 cost가

높은 美·英에서는 자본 cost가 낮은 日·獨 보다도 연구개발 지출의 신장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금후 미국에서는 단기 업적 중심에서 벗어나고, 국방비 삭감에 의한 자금, 인재의 비국방 분야 연구개발로의 이전,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취하므로써 연구개발 지출의 급신장이 기대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일본기업의 고부가가치화 전략, 구주기업의 EC통합에 의한 경쟁격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본과 유럽에서도 연구개발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그 때문에 미국은 기술경쟁력의 상대적 저하를 저지하는 것이 고작이고, 이러한 기술경쟁력의 측면에서 美·日간의 무역불균형 개선은 별로 기대되지 않는다.

2.2. 해외 직접 투자의 영향

최근에 일본 메이커들의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여태까지는 직접투자가 당사국간의 収支 불균형을 어느정도 시정할 수 있는가 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주목을 끌었는데 반해, 지금은 투자수입국의 경제·제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미시적인 관점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의 해외 직접투자는 이제부터 더욱 활발해지겠지만, 증가추세는 점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의 해외 직접 투자액이 '88년 498억 달러에서 '95년도에는 1,329억 달러로, 해외 생산비율도 '88년도의 3.9%에서 6.6%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이 해외 현지 생산의 증가로 부터 수출대체 역수입 등의 채널을 통해 일본의 무역수지는 '88년에서 '95년에 이르기까지 369억 달러가 축소될 것으로 추측한다. 직접투자가 연구개발 투자보다도 빨리 収支 균형을 개선하는 힘을 갖고 있다.

여기서, 일본 기업의 진출이 현지 재래기업을 잠식해 버린다는 회의론도 있으나, 진출현지의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자극제 역할도 한다. 즉 현지 재래기업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상품화 기술등 연구개발에 주력하여 가격경쟁 이외에도 기술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케이스도 있다.

표1) G5의 수출특화 및 연구개발 특화의 동향

| | | (1988년 기준) | | | | | | | |
|------------|--------|------------|-------|------|-------|-------|-------|------|------|
| 구분/업종 | 식료·원재료 | 의약 | 의약외화학 | 사무기기 | 일반기계 | 전기기기 | 승용차 | 항공기 | 섬유 |
| 수출시장 규모 ① | 11.3% | 1.3% | 10.2% | 6.0% | 15.0% | 11.9% | 14.8% | 2.8% | 2.5% |
| 수출성장성 ② | 0.76 | 1.22 | 1.02 | 2.09 | 0.92 | 1.41 | 1.15 | 0.94 | 0.80 |
| 수출특화계수 ③ | | | | | | | | | |
| 미 국 | 1.84 | 1.12 | 0.97 | 1.39 | 0.91 | 0.85 | 0.63 | 2.69 | 0.54 |
| 일 본 | 0.13 | 0.20 | 0.49 | 1.47 | 1.02 | 1.84 | 1.57 | 0.04 | 0.87 |
| 서 독 | 0.63 | 1.12 | 1.22 | 0.42 | 1.22 | 0.73 | 1.18 | 0.50 | 1.35 |
| 프 랑 스 | 1.74 | 1.22 | 1.21 | 0.55 | 0.66 | 0.66 | 0.79 | 0.86 | 1.27 |
| 영 국 | 0.93 | 1.77 | 1.29 | 1.20 | 1.05 | 0.70 | 0.46 | 0.72 | 1.07 |
| R&D 특화계수 ④ | | | | | | | | | |
| 미 국 | - | 0.88 | | 1.15 | | 0.90 | 0.84 | 1.44 | - |
| 일 본 | - | 1.02 | | 0.85 | | 1.14 | 1.30 | 0.00 | - |
| 서 독 | - | 1.35 | | 0.89 | | 1.00 | 1.46 | 0.33 | - |
| 프 랑 스 | - | 1.30 | | 0.62 | | 1.15 | 1.10 | 1.32 | - |
| 영 국 | - | 1.17 | | 0.74 | | 1.27 | 0.71 | 1.06 | - |

注) ① G5 당해품목의 수출액/G5의 총수출액 (1988년 기준)

② $\frac{G5 \text{ 당해품목의 수출액('88년)}}{G5 \text{의 총 수출액('88년)}}$
 $\frac{G5 \text{ 당해품목의 수출액('80년)}}{G5 \text{의 총 수출액('80년)}}$

③ $\frac{\text{당해국 당해 품목의 수출액/당해국의 총 수출액}}{G5 \text{ 당해품목의 수출액/G5의 총 수출액}}$ (1988년 기준)

④ $\frac{\text{당해국 당해 업종의 연구개발 투자/당해국의 민간기업 연구개발 투자}}{G5 \text{의 당해업종의 연구개발 총 투자액/G5의 민간기업 연구개발 총투자액}}$ (1985년 기준)

자료) OECD, 각국 통계에서 노무라 종합연구소 작성

3. 세계경제의 지역별 동향

3.1. 미국경제의 구조조정과 자원 배분

'90년대의 미국경제는 경제 성장면에서 '80년대에 비해 뒤떨어지지만, '87년 이후의 국내외에서의 불균형 개선기조는 계속될 것이다.

가계 부문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성숙화에 따라 개인 저축율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구성 변화에 의해 저축율이 높은 35세에서 44세 세대의 구성비가 상승하는 한편, 저축율이 비교적 낮은 45세에서 54세 세대의 구성비도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의 저축율은 대략 현재의 5% 근처의 수준일 것이다. 단, 현재 베이비붐 세대의 약 6할이 자택을 소유하고 있어 주택투자의 신장은 둔화한다. 저축율의 안정, 주택투자의 둔화에 의해 가계 부문은 안정적인 자금 공급이 이루어진다.

재정지출은 작금의 동서긴장 완화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 많은 국방비 삭감이 예상된다. 그러나, 한편 환경·교육·범죄대책등에 대한 지출요구가 높아지니까 재정수지의 개선은 완만히 좋아질 것이다.

재정적자 삭감에 의해 기대되는 실질금리의 인하는 노동 부족에 의한 노동대체 목적의 설비 투자를 자극하기 때문에, 기업부문은 향후 고수

준의 투자초과가 계속된다. 이 결과 민간부문에서는 가계의 저축초과가 기업의 투자초과를 어느정도 상쇄하고, 이것이 정부부문의 재정적자삭감에 일조하여 미국 전체로서는 저축 부족이 서서히 해소될 것이다.

실질금리 인하에 따른 완만한 달러 하락과 설비투자 확대에 의한 수출력의 증가, 수출은 비교적 견실한 성장을 유지한다. 한편 국내수요의 둔화 때문에 수입은 신장이 어렵고 수출을 밀도는 성장율을 보일 것이다. 이 결과 경상수지 적자는 '89년의 GNP대비 2.2%로 부터 '95년에는 1.3%까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외채 잔고가 금액상 증가 하지만 GNP비로 보면 '95년에 17.2%로 피크를 이루고 그 이후는 완만히 축소할 것이다.

경제성장의 패턴은 대외수지 개선에 의해 外需가 프러스 요인이 되는 반면 국내 수요는 개인소비, 정부지출을 중심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결과 '90년대 초반의 실질GNP 성장율은 2.4%로 '80년대의 3.0%보다는 줄어 들 것이다.

노동력 인구의 신장이 둔화하지만 설비투자 확대에 의해 자본 stock이 성장하고 회복해 나가기 때문에 '90년대 초반의 공급 잠재성장율은 연 2.6%로 미약하지만 실제 성장율을 웃도는 수준이 될 것이다.

7년 이상에 걸친 경기확대를 통해 미국 경제의 공급력은 현재 꽤나 축소돼 왔다. 금후, 잠재성장율과 실제성장율 간에 큰 차가 없다고 예견되기 때문에 인플레이 압력의 완전한 불식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소비자 물가상승율은 '95년까지 년평균 4.4%로 현재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추이된다.

또, 반대로 '91~'92년경의 경제 성장율이 잠재성장율 보다 높아지고 동시에 원유가격이 급상승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상 애기한 표준 시나리오가 무너지는 위험도 존재할 것이다. 이 경우 소비자 물가상승율은 '93년경 일시적으로 6%정도까지 높아져, 금융정책이 아주 긴축을 요구되기 때문에 경기는 후퇴 국면을 맞고 그때 M & A·LBO 붐에 의해 취약한 미국기업의 재무체질이 문제가 되어 그것이 금융불안의 계기가 되는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

3.2. 변모하는 유럽경제

EC 시장통합, 동서독일의 통일 등으로 유럽경제는 크게 변하고 있다. 먼저, 시장통합은 투자유발 효과에 의해 EC 주요 4개국(영·독·이태리·불란서)의 실질 설비 투자는 중기적으로 약 1.5%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결과, 설비투자는 금후 5년간 연 4.7%(EC 12개국에서는 5.2%) 정도의 확대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잠재 성장율의 신장도 2.9%(EC 12개국 3.0%)로 가속할 것이다. 일본의 4.1%에는 미치지 못해도, 미국의 2.6%을 웃돌아 세계 경제에서의 EC 비중은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설비투자 주도의 경기확대는 왕성한 자금수요를 수반하고, 국내의 I-S 밸런스는 재정수지의 호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EC 12개국에서의 비즈니스찬스 증대는 직접 투자를 유발하고 처음은 외자유입을 촉진할 것이다. 이에 따라 유럽통화는 확고한 추이를 보일 것이다.

동서 독일의 경제통합은 예상을 넘는 템포로 진전하고 있다. 통화 통합을 선두로 각종정책이 이후에도 눈부시게 나올 것이다. 이것은 통화공급량을 늘리므로써 서독경제에 대해 소비재, 자본재의 수요확대 효과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서독은 500억 달러가 넘는 경상수지 흑자국이기 때문에 수입증대에 의해 수요압력을 흡수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또, 중기적으로는 동독의 인플레이 정비등 그리고 서독으로의 자본유입을 효율적으로 생산 능력 향상에 결부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동서 구주의 경제협력 강화와 비례하여 서구가 EC 시장통합을 축으로 경제활력을 유지하며, 동구의 개혁을 지원하는 도식이 「유럽공동의 집」이라는 경제적 생명선으로 한층 더 중요성을 높일 것이다.

3.3. 서태평양 경제권의 형성

서태평양 지역은 고성장과 상호의존관계 강화를 배경으로 일본과 아시아 신흥공업국(NIEs)을 중심으로 하나의 경제권으로 지위를 향상시키고

있다.

'90년대 아시아 제국의 년평균 성장율은 아시아 NIEs가 7.3%, ASEAN이 7.1%, 중국이 7.6%로 계속하여 세계평균(3.2%)을 대폭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반영하여 2000년의 각 지역 GNP는 아시아 NIEs가 8,600억 달러('88년 고정가격 외환 rate), ASEAN이 4,800억 달러, 중국이 8,7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일본(4조 6,500억 달러)과 오스트레일리아(3,400억 달러)을 합하면, 서태평양의 GNP는 7조 2,000억 달러에 달해 EC(6조 7,700억 달러) 및 북미(7조 2,100억 달러)와 맞먹는 규모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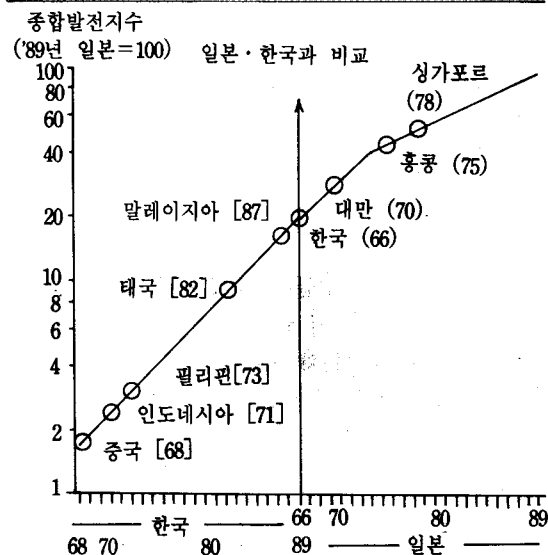
서태평양 지역의 경제발전은 도상국이 선진국으로 부상해 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다. 현단계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경제격차는 23년, 한국과 태국·중국간에는 각각 7년, 21년으로 추정된다. 과거 30년간의 고도성장기를 통해 아시아, NIEs는 선진국으로, ASEAN·중국은 신흥공업국으로 돌입하려는 새로운 단계를 맞고 있다. 일본과 아시아 NIEs의 여태까지 경험에서 금후의 성장율은 아시아 NIEs가 약간 줄어들고, ASEAN이 상승할 것이다. 그 결과, 아시아 지역에서는 북고남저형의 경제 성장 구도가 무너져 양지역의 성장율은 중반기로 돌입하리라고 생각된다. '89년의 ASEAN의 성장율이 '80년의 제2차 석유험기 이래 처음으로 아시아 NIEs를 능가했다.

한편, 아시아 제국의 무역구조는 공업화의 진전이 반영되어 한층더 고도화 할 것이다. 싱가폴은 기계류 수출이 주류이고, 벌써 선진공업국의 무역구조를 갖고 있다. 한국과 대만도 수년안에 같은 단계에 도달할 것이다. ASEAN제국도 해외로부터의 직접투자 급증을 기화로 일차 상품 의존도를 줄이고 2000년까지는 노동집약형 제품의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NIEs형 무역구조가 될 것이다. 그 결과 산업구조는 제조업 제품과 일차상품 간의 수직분업에서 제조업 제품간의 수평분업으로 그 비중을 높여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80년대의 세계 무역은 EC, 북미, 서태평양 지역이라는 3대경제권에 집중될 경향이 보여 그 내용도 지역의 무역에서 역내무역으로 옮겨가고

있다.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80년대 초에는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졌었지만, '85년의 PLASA 합의 이후의 통화조정과 그에따른 역내 직접투자의 급증을 배경으로 역내무역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 경향은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2000년의 일본과 아시아 NIEs의 대미수출 의존도는 미국수입규모의 상대적 축소에 의해 각각 27.0%('88년 34.1%), 24.1%(同31.2%)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견된다. 역으로 미국의 대일본, 대 아시아 NIEs수출 의존도는 양지역의 수입규모 확대와 대미수입 축진을 반영하여, 각각 15%를 넘을 것이다. 또, 일본·아시아 NIEs간에는 수입규모 요인과 더불어 제조업 부문에서의 수평분업이 한층더 발전하기 때문에 상호간의 수출의존도가 상승할 것이다. 그 결과 서태평양 지역의 역내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88년의 39.9%로 부터 상승하여 2000년에는 EC의 수준('88년 59.5%)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태까지 미국 시장을 축으로 전개되어 온 서태평양 지역의 의존관계는 환태평양 상호의존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표2) 아시아 諸國의 발전 정도



註) 각국의 데이터는 '89년 기준이고, () 속은 일본, [] 속은 한국의 해당년도를 표시.
자료) 노무라 종합연구소

표3) 아시아 諸國의 성장률

| 지역/년도 | 60년대 | 70년대 | 80년대① | 90년대(예상) |
|-----------|------|------|-------|----------|
| 아시아 NIEs② | 8.8 | 8.7 | 8.3 | 7.3 |
| 한 국 | 8.4 | 7.7 | 9.3 | 8.3 |
| 대 만 | 9.0 | 9.7 | 8.1 | 6.7 |
| 홍 콩 | 9.7 | 9.4 | 6.7 | 6.0 |
| 싱가포르 | 9.2 | 9.0 | 6.8 | 7.0 |
| ASEAN ② | - | 7.1 | 5.0 | 7.1 |
| 인도네시아 | 4.5 | 7.3 | 4.9 | 6.8 |
| 말레이시아 | - | 8.0 | 5.7 | 7.2 |
| 필 리 핀 | 5.2 | 6.3 | 1.9 | 6.2 |
| 태 국 | 8.3 | 6.8 | 7.0 | 8.1 |
| 중 국 | 4.0 | 5.8 | 8.3 | 7.6 |
| 오스트레일리아 | 5.3 | 3.3 | 3.3 | 3.1 |
| (참고) | | | | |
| 세 계 | 4.8 | 3.6 | 3.0 | 3.2 |
| 일 본 | 10.5 | 4.7 | 4.3 | 4.0 |
| 미 국 | 3.8 | 2.8 | 2.8 | 2.5 |

注) ① '89년은 추정치, '90년은 예상치

② '88년 GNP에 의한 가중 평균치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국 공인 통계치 및 노무라 종합연구소

4. 일본 경제 fundamentals

4.1. 노동력 수급

일본의 노동력 수급은 대형내수 경기에서 노동수요가 급성장 했기 때문에 '90년 초인 현재에는 tight한 상황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출생률 저하를 배경으로 취업가능 인구의 고령화는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극단적인 노동수급을 피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정부에는 ① 고령자와 여성의 고용환경 정비에 의한 노동력율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② 재고용 시스템의 효율화에 의해 실업율을 억제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민간기업에서는 ③ 설비투자의 의욕적인 증강과 R&D 투자에 의한

기술 발전을 도모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 대체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 유통부문의 효율화 등도 노동력 부족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거시적으로 ① 노동력율을 63.2%로 끌어올려 ② 실업율을 현재의 구조적 실업율로 추정되는 2.52% 이하로 유지함과 동시에 ③ '92년 이후 매년 6.3%씩 설비투자를 증강시켜 기술진보율을 연평균 1.9%까지 유지시켜야 한다.

4.2. 소비구조의 고도화

'70년대로 부터 '80년대에 걸쳐 가계지출 구성비는 필수적 지출에서 선택적 지출로, 財支出에서 서어비스 지출로 중심을 옮겨왔다. 선택적 지출의 상대적 상승은 외식이나 교육비의 증가는 요인에 의하고, 서어비스 지출 증가는 소득증가, 여성의 사회 진출, 내구재에 부대되는 서어비스 증가 요인에 의하고 특히, 자동차 관련 서어비스, 교육비·통신비 등 선택적 서어비스 지출 증가가 눈부시다. 또, 여성복을 중심으로 값비싼 의복을 구입하게 되는 등 필수적 지출에서도 질적 향상이 감지된다.

이와같은 가계 변화는 소득면의 풍성함을 어느정도 달성한 소비자가 생활면의 풍성함을 구하고 있는 결과이고, 교양이나 레저 지출 증가에 연결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이 계속돼 자유시간이 증대하므로써 스포츠나 해외여행과 같은 서어비스 중심의 레저 시장규모가 높은 성장율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4.3. 2000년의 地價

'87-'88년에는 금융완화, 오피스 수급 팽박이 주요인이 되어서 동경권으로 부터 상업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일어났다. 통계에 의하면 금융완화 및 기대가격의 상승이 없더라도 오피스 수급 팽박만으로 동경의 상업지가는 '80년 수준의 약 2 배이었음을 알수 있다. 오피스 수급의 팽박 상태는 향후 계속될 것이며 2000년에는 지금에 비해 팽박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다.

표4) 세계 경제 증장기 예측 요약표

| 구분 | 1990 | | 1995 | | 2000 | | 1995/90 | 2000/95 | (參考) 90/80 |
|---------------------|--------|---------|-------|---------|-------|-----------|-----------|---------|---------------|
| | 년도 | (비율) | 년도 | (비율) | 년도 | (비율) | 실질GNP(%) | | |
| 명목 GNP(10억 달러) | | | | | | | | | |
| 세계 | 21139 | 100.0% | 30339 | 100.0% | 44167 | 100.0% | 3.2 | 3.3 | 3.0 |
| 일본 | 2986 | 14.1% | 4616 | 15.2% | 6973 | 15.8% | 4.1 | 4.0 | 4.3 |
| 미국 | 5537 | 26.2% | 7622 | 25.1% | 10341 | 23.4% | 2.5 | 2.6 | 2.8 |
| EC 4개국 | 4466 | 21.1% | 6659 | 21.9% | 9822 | 22.2% | 2.9 | 3.0 | 1.9 |
| 아시아 NIEs | 497 | 2.4% | 982 | 3.2% | 1922 | 4.4% | 7.3 | 7.3 | 8.3 |
| 기타선진국 | 3120 | 14.8% | 4326 | 14.3% | 6236 | 14.1% | 3.0 | 3.3 | 2.3 |
| OPEC | 450 | 2.1% | 632 | 2.1% | 899 | 2.0% | 3.0 | 3.0 | 0.8 |
| 개발도상국 | 2248 | 10.6% | 3055 | 10.1% | 4491 | 10.2% | 3.0 | 3.3 | 3.8 |
| 공산권 | 1836 | 8.7% | 2446 | 8.1% | 3483 | 7.9% | 2.8 | 3.0 | 2.9 |
| 1인당 GNP(천달러) | | (對日本) | | | | | 평균신장율 | | (80년수준) |
| 일본 | 24.1 | 1.00 | 36.5 | 1.00 | 54.1 | 1.00 | 8.7% | 8.2% | 9.1 |
| 미국 | 22.1 | 0.92 | 29.3 | 0.80 | 38.5 | 0.71 | 5.8% | 5.6% | 12.0 |
| EC 4개국 | 19.4 | 0.80 | 28.8 | 0.79 | 42.5 | 0.79 | 8.3% | 8.1% | 10.8 |
| 아시아 NIEs | 6.9 | 0.28 | 12.8 | 0.35 | 23.7 | 0.44 | 13.3% | 13.1% | 2.3 |
| 수출액(FOB, 10억달러) | | (비율) | | | | | 평균신장율 | | |
| 세계 | 3229 | 100.0% | 5022 | 100.0% | 7906 | 100.0% | 9.2% | 9.5% | 5.5% |
| 일본 | 288 | 8.8% | 440 | 8.8% | 665 | 8.4% | 8.9% | 8.6% | 8.2% |
| 미국 | 394 | 12.2% | 658 | 13.1% | 1056 | 13.4% | 10.8% | 9.9% | 9.0% |
| EC 4개국 | 981 | 30.4% | 1545 | 30.8% | 2499 | 31.6% | 9.5% | 10.1% | 7.0% |
| 아시아 NIEs | 263 | 8.1% | 443 | 8.8% | 760 | 9.6% | 11.0% | 11.4% | 13.1% |
| 기타선진국 | 610 | 18.9% | 884 | 17.6% | 1364 | 17.3% | 7.7% | 9.1% | 4.5% |
| OPEC | 170 | 5.3% | 272 | 5.4% | 401 | 5.1% | 9.8% | 8.1% | -5.7% |
| 개발도상국 | 323 | 10.0% | 497 | 9.9% | 750 | 9.5% | 9.0% | 9.0% | 2.5% |
| 공산권 | 200 | 6.2% | 283 | 5.6% | 412 | 5.2% | 7.2% | 7.8% | 9.9% |
| 경상수지/무역수지(10억달러) | (경상) | (무역) | (경상) | (무역) | (경상) | (무역) | 소비자물가(%) | | |
| 일본 | 56.3 | 76.0 | 43.0 | 42.4 | 19.5 | 15.6 | 1.5 | 1.8 | 2.0 |
| 미국 | -119.3 | -111.4 | -95.6 | -75.8 | -88.1 | -43.4 | 4.4 | 4.2 | 4.6 |
| EC 4개국 | 17.2 | 31.2 | 19.4 | 20.6 | 21.2 | 4.0 | 3.9 | 3.6 | 5.8 |
| 아시아 NIEs | 23.8 | 28.5 | 20.0 | 19.7 | 21.1 | 15.8 | 5.0 | 5.0 | 4.9 |
| 기타선진국 | -17.1 | -14.0 | -9.9 | -4.6 | -6.3 | -0.4 | - | - | - |
| OPEC | 15.1 | 52.0 | 9.2 | 35.4 | 14.4 | 32.1 | - | - | - |
| 개발도상국 | 20.0 | -54.1 | 21.7 | -12.7 | 26.6 | -3.5 | - | - | - |
| 공산권 | 4.0 | -8.2 | -7.8 | -25.1 | -8.3 | -20.2 | - | - | - |
| 외환율 | | (90/85) | | (95/90) | | (2000/95) | 장기금리(10년) | | |
| 미국(\$) | 92.9 | -8.3% | 87.4 | -1.2% | 83.1 | -1.0% | 7.5% | 7.0% | |
| 일본(¥/\$) | 140 | -10.1% | 120 | -3.0% | 106 | -2.5% | 5.4% | 5.6% | |
| EC4(\$/ECU) | 1.20 | 9.5% | 1.30 | 1.6% | 1.41 | 1.6% | 7.25% | 7.0% | |
| 아시아 NIEs(\$/NIEs통화) | 1.19 | 5.7% | 1.31 | 2.0% | 1.45 | 2.0% | - | - | |

注) ① 무역수지는 FOB~FOB 베이스

② 외환율은 미국이 무역가중 실효율 '73년 3월=100, 아시아 NIEs GNP 가중 '87년 평균=1.0

③ 1인당 GNP의 우측란은 '80년의 실질금액

④ 장기금리는 각각 '95년, 2000년의 평균

자료) 노무라 종합연구소

이후의 택지수요는 주택총수의 증가 속도의 감소로 인해 감소경향을 보일 것이다. 한편 택지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가지 구역내 농지의 택지 전용도 세계에 의한 전용 저해 효과나 농가의 소유금융자산 증가에 따른 토지매각에 대한 인센티브 인하등에 의해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다. 쌍방의 요인을 고려한 통계식에 의하면 주택지가는 '90~'95년에는 연평균 1.0%, '95~2000년에는 연평균 1.9% 상승이 될 것으로 추계된다. 토지양도 소득세 감면은 2000년의 주택지가 수준을 9.4% 인상 시킬 것으로 계산된다.

4.4. 유럽·미국과 같은 사회 자본 수준을 목표로

일본의 사회자본 정비는 구미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떨어지며 활력기반 투자 부문에서 도로와 공항이 또, 쾌적 기반 투자에서는 하수도 정비, 공원 정비 등이 저수준이다.

금후의 사회자본정비는 자원배분에 의해 생활 중시형으로 바뀌고, 고도 정보화 사회의 구축을 향해 교통 infrastructure의 형성에 중점을 둘 것이 요구된다.

공적고정자본 형성의 신장을 전제로 하면, 사회자본정비를 위한 누적투자규모(1985년 가격)는 2000년까지 360조엔 정도에 달해 2000년의 갱신 투자비율은 20.8%가 될 것으로 계산된다. 이러한 페이스로 사회 자본정비가 진전할 경우 사회자본 stock액은 2000년에는 현재의 약 1.7배가 될 것으로 예견된다.

5분야(도로포장, 고속도로, 공항, 하수도, 도시공원)의 사회자본 정비에 의해 2000년에는 산업전체 105조엔 정도의 국내생산액이 창출되어 대략 670만명 정도의 노동력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예견된다. 더우기 이 경우 5조엔 정도 수입이 유발될 것으로 계산된다(1985년 가격으로).

사회자본 정비는 국내투자 기회를 확대하여 내수주도의 경제성장에 연결될 뿐 아니라 수입을 유발하여 대외불균형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다.

4.5. 풍요한 시대의 저축행동

개인금융 자산 잔고는 순조로운 축적이 계속돼 '88년말에는 786조엔에 달했다.

자산축적의 진행과 동시에 ① 사회 고령화의 진전 ② 개인의 고수익성 선호를 반영하여 금융자산의 구성비가 변화하고 있다.

개인소비나 주택투자에 대한 신용대여가 총체적으로 본 개인금융 자산잔고를 높이는 측면이 있는 것에 유의하여 개인금융자산 잔고를 예측하면은 2000년까지의 연평균 9%정도로 확대를 계속해 '95년에는 약 1,600조엔, 2000년에는 약 2,500조엔에 달할 것이다.

4.6. 산업구조의 서어비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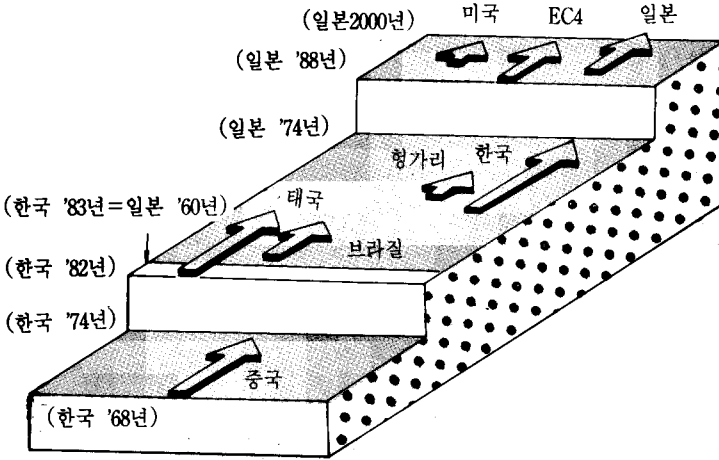
일본 경제는 물건을 생산하는 산업이 중심인 시대로 부터 정보나 서어비스가 부가된 고부가가치화된 상품 생산을 행하는 산업이나 정보·서어비스 그 자체를 생산하는 산업이 중심이 되는 경제로 발전하고 있다.

3차 산업의 취업인구 구성비는 '80년의 52.9%로부터 '90년 57.4%, '95년에는 60.3%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보화 사회·네트워크화 사회의 핵이 되는 운수·통신업에서는 향후 5년간의 취업자 수는 연평균 3.3%로 3차 산업평균의 2.0%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은 서어비스화는 소비 등 최종수요 단계의 서어비스율이 높아짐에 따라 같은 1억엔 상당의 물건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서어비스 양이 증가하고 있다.

'90년대의 제조업은 보다 고부가가치화된 제품 생산에 주력하여 해외 현지 생산이나 제품수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을 유지한다. 한편, 서어비스 생산 부문에서도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탱하는 고품질의 서어비스 신장이 기대된다. 즉, 상품생산이 고품질의 서어비스가 투입되어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지지하는 synergy 효과가 일본 경제 전체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표5) 2000년의 Economic performance

경제발전 단계지수에 의한 각국 경제 발전 비교



| | |
|-------|-----------------|
| 중 국 | 한국 '68년→한국 '73년 |
| 태 국 | 한국 '82년→일본 '65년 |
| 브라질 | 일본 '62년→일본 '64년 |
| 헝가리 | 일본 '68년→일본 '71년 |
| 한 국 | 일본 '66년→일본 '73년 |
| E C 4 | 일본 '88년→일본 '97년 |
| 미 국 | 일본 '91년→일본 '97년 |

注) ① 화살표는 각당해국의 '89년 부터 2000년까지의 경제발전을 표시

② 발전단계 비교는 일본의 경제 발전을 기준으로, 각국 경제의 발전 단계가 일본의 몇년도에 해당하는가를 표시.(단 일본의 '60년 이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연속성이 없으므로 한국경제를 기준으로 비교하였음) * 일본의 '60년은 한국의 '83년에 해당함.

| | A 엔겔 계수 (%) | B 기계수출 비율 (%) | C 농업의 비율 (%) | D 평균수명 (세) | E 자동차 보유대수 (대/1000인) | F 전화 보유대수 (대/100인) | 경제발전단계지수 (1989년 일본=100) | |
|--------|----------------------|------------------------|-----------------------|------------------|-------------------------------|-----------------------------|----------------------------|-------|
| | | | | | | | 1989년 | 2000년 |
| 중 국 | 61 | 4 | 31 | 69 | 3 | 1 | 1.7 | 3.3 |
| 태 국 | 30 | 12 | 16 | 64 | 28 | 2 | 8.6 | 17.2 |
| 브 라 질 | 35 | 17 | 11 | 65 | 84 | 9 | 12.7 | 16.0 |
| 한 국 | 35 | 33 | 11 | 69 | 39 | 22 | 19.1 | 40.5 |
| 헝 가 리 | 25 | 34 | 15 | 70 | 163 | 15 | 25.2 | 33.7 |
| E C 4① | 15 | 41② | 3 | 76 | 445 | 56 | 97.0 | 135.7 |
| 일 본 | 16 | 65② | 3 | 78 | 408 | 56 | 100.0 | 148.2 |
| 미 국 | 13 | 47② | 2 | 75 | 728 | 79 | 107.6 | 133.4 |

A: 소비 지출에 접하는 식료품 지출의 비율 B: 수출에 접하는 기계 제품의 비율

C: GNP에 접하는 농업 생산액의 비율. B와 C는 수출구조, 산업구조인 경제구조 관련 지표.

A와 D~F는 생활수준 관련 지표. 이러한 지표를 사용하여 각국별로 1987년의 경제발전 단계를 나타냈었음. 1989년의 일본 수준을 100으로 지수화 하였다.

注) ① 영국·프랑스·독일·이태리

② 선진국간의 비교시, 기계수출의 비율은 그 나라 특유의 산업구조를 반영하였지만 발전단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는 부적절하여 기타 5개 변수로 경제발전 단계지수를 작성했다.

5. 선진국과 경제발전 단계지수

이 보고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발견은 “어느 한 나라가 선진국이나? 아니냐?”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모아 칭하기를 “경제발전단계지수”라 하였는데, 이 『경제발전단계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중, 기계공업의 견실한 성장을 나타내는 『기계류 수출지수』를 선정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결론가운데 두가지를 집어내면 첫째, 평화시대의 경제전망은 매우 밝다는 것과 둘째, 2000년대 한국은 선진국 판단 기준인 경제발전단계지수가 '89년 19.1에서 40.5로 214의 증

가하나, 일본은 '89년 100에서 48.2가 증가한 148.2로 예측하여, 앞으로 10년후에도 우리나라는 일본을 따라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뒤떨어진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선진국인 G7국의 전체수출에서 점유하는 기계제품의 비율을 보면, 미국은 47%, 일본은 65%, EC는 41%등이며, 한국은 33%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우리나라가 선진공업국(G7)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 및 무역구조혁신의 바로 메타가 되는 기계류 제품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개발 투자로 기술경쟁력의 향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국제 학술대회 참가안내

제 2 회 한일 유체공학 학술회의 논문모집 (The Second KSME-JSME Engineering Conference)

주 최 : 대학기계학회(KSME), 일본기계학회(JSME)

개 최 일 : 1990년 10월 11일(목)~12일(금)

개최장소 : 서울

분 야 : 유체공학분야(열, 질량이동 및 화학반응을 수반하는 유체유동 포함)

사용언어 : 영어

일 정 : 1990년 4월 30일 : 논문초록(약 200자) 접수마감

1990년 5월 31일 : 참가 접수 통지

1990년 8월 31일 : 완성된 논문 접수마감

(사진 재판용 영문 타자 원고 제출)

※논문 발표를 희망하시는 분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90. 3. 31. 까지)에 논문 가제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처 :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이진호 교수

☎120-7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TEL : (02) 392-0132(교) 2779

FAX : (02) 312-7735